

“AI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창의적 아이디어 공감”

동강대 AI융합전기와 'RISE UIC X...' 경진대회서 대상 'KNN사회공감상' 수상...솔루션 역량·기술 가능성 고평가

동강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트렌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공감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동강대 AI융합전기는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RISE UIC X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eXperienced) AI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아이디어톤' 대회에서 대상과 KNN사회공감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문대학산학협력추진협의회·DX거버넌스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AI SDGs 아이디어톤'은 환경·보건·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구현 가능한 솔루션 역량과 사회적 가치 및 기술 가능성을 평가받았다.

동강대는 AI융합전기와 학생들이 RISE 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AI SDGs 특화 코딩교육과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기웠다.

이번 대회를 지도한 AI융합전기과 전영남 교수(RISE사업단장)는 “이번 수상은 RISE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기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모델의 성과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교



동강대 AI융합전기과가 지난달 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RISE UIC X 아이디어 톤' 대회에서 대상과 KNN사회공감상을 수상했다. 왼쪽부터 박근남·전영남 교수·정수민·최재혁씨.

육 전력과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I융합전기과 박근남씨(1년)는 “실제 사회문제를 시뮬레이션하고 AI 기반의 솔루션을 기획·제안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 워크도 더

끈끈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강대는 RISE 사업을 통해 △인재 SKILL UP △기업 VALUE UP △지역사회 GROW UP △대학 INNO UP 등 4개 프로젝트 아래 11개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PEOPLE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나주시-나주우체국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나주시가 나주우체국과 손잡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도입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집배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구 2000명을 촘촘히 지원한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가구를 선정해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집배원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생활실태를 확인한 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시에 회신한다.

시는 회신된 자료를 토대로 위기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고 필요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1300명과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 중 위기가구 의심 세대 700명 등 총 2000명이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우편요금을 나주시나 나주우체국이 부담해 추진하며 9월 말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우체국과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soe007@

한빛원자력본부, 추석맞이 이웃사랑 실천

영광군에 2500만원·생필품 262세트 기탁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현금 2500만원과 생필품 262세트(2096만원 상당)를 영광군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연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군민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jg98@gwangnam.co.kr

기탁된 현금 2500만원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나눔 냉고 8개소의 물품구입비로 쓰일 예정이다.

생필품 262세트는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세일 군수는 “매년 명절마다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에 동참해주시는 한빛원자력본부에 감사하다”며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광역시매점센터, 해남군과 함께 18일 해남문화예술관에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남도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겠다”

'치매극복의 날' 유공자 표창·광역치매센터 국무총리 표창

전남도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도는 전남광역시매점센터, 해남군과 함께 18일 해남문화예술관에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치매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에 나섰다.

매년 9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가 치매 문제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정한 '치매극복의 날'이다. 올해 전남도 행사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도내

공립요양병원장,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꽃매칭추천장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치매극복 유공자 14명에 대한 표창, 장작시 낭독, 치매 퍼즐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전남도광역치매센터는 치매 관리사업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전남도는 치매 예방·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대행사로는 창작시 전시회와 치매 테마부스가 마련돼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동부소방, 대형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

광주 동부소방은 최근 화재 취약시설인 대형 공사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사장 화재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경찰 관계자는 공사장 관계인 면담을 시작으로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주의사항 안내, 임시소방시설·위험물 사용현황 확인 등을 했다.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장인 만큼, 작업 전후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김영일 동부소방서장은 “건설현장은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장인 만큼, 작업 전후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안전·교통 분야 시민 중심 정책 추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간담회 개최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시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생활안전·교통 분야 정책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자치경찰 시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생활안전과 교통 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생활안전 강화,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을 기하고 있다.

서부경찰은 18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광주 서구 영주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굣길 기초질서 확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서부경찰을 비롯해 서구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가 함께 참석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어린이 안전 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를 적극 홍보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다”며 “유관기관 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게시판

- 결론** △윤준재(광주글로벌모터스 홍보실장)·조영희씨 장남 윤영일군(광산경찰서), 김경훈(전 KT링크스 목포지사장)·김미숙씨 장녀 김소영양(호남대 한국어교육원)=27일(토)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반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운세 (음력 7월 28일)

- 48년생 모험이나 투기는 손대지 말라
- 60년생 과정에 공을 들여야 득이 된다
- 72년생 남비를 하지 말고 아껴 두라
- 84년생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는 기쁨
- 96년생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 51년생 사업은 추진력이 있어야 성공
- 63년생 확실한 변별력이 절실하다
- 75년생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보라
- 87년생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능력 보이라
- 99년생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
- 54년생 부동산 취득 욕심을 버려라
- 66년생 한 가지 일로 다른 일까지 짜증난다
- 78년생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 걸때
- 90년생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
- 57년생 움푹딱딱 웃을 처지
- 69년생 만사가 길운으로 진행
- 81년생 실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 93년생 학업에 꾸준히 노력하라
- 49년생 혼신의 힘을 다하면 극복된다
- 61년생 친구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다
- 73년생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라
- 85년생 무엇보다도 실익을 우선하라
- 9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합격할 것
- 52년생 문서는 내 것이 아니다
- 64년생 일로 인해 곤혹스러워질 수 있다
- 76년생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날
- 88년생 변화를 모색하면 궁지에 빠진다
- 50년생 이길 수 있는 만큼만 취하라
- 62년생 욕심을 버려야 한다
- 74년생 능력을 과신하지 말 것
- 86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 98년생 뒷사람 도움으로 희망이 생긴다
- 53년생 기본 체계를 중요시 하라
- 65년생 느긋한 행동은 되도록 하라
- 77년생 충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89년생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 56년생 어려운 상황이나 혼자 할 수 없다
- 68년생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라
- 80년생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다
- 92년생 별 문제없이 순탄할 것
- 59년생 답답한 일이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
- 71년생 지인에게 배신당하는 운
- 83년생 주위사람 때문에 마가 끼고 있다
- 95년생 지인로 인해 마음 괴상 있는 날